



시23: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서론

여정 - 하나님 여정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여정'이라고 한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이다. 그 말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비밀

이 길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아는 게 아니라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걸 설명을 잘해준다고, 육신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영적사실 영적비밀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비밀이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반드시 확인되어지는 사실이고,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다.

10가지!

우리가 이 여정에서 찾은 비밀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10가지 정도 나온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를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비밀들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단어의 사용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뺏길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으나, 그러나 확실한 어떤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본론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23편은 누가 기록했나? 다윗이다.

다윗

다윗을 보자. 그의 인생에서 그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10가지 비밀 중에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목동양

다윗은 원래 목동이다.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으로 와라는 호출이 왔다.

사무엘-기름부음왕

집에 가니, 너무나 유명한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오더니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서 '너 이제 왕이야'라고 하는 거다. 양 잘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다윗은 왕이다. 그 이후에 다윗이 살아갔던 그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다음에 누구를 만났는가? 골리앗이다.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 대단하다고 얘기한다. 다윗은 만만하고 사울은 천천이다라며 칭송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고, 왕의 아들은 물론이요, 온 지구가 다윗을 좋아한다.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 왕이 장인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따라다니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야 했다.

사실은 실력으로 따졌을 때는 왕 하나 처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을 기름 부으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왕에게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고 도망다니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막 온다. 이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나라를 하나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자주 온다. 쪽수가 작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떠한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가? 왕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뭔가 힘을 가진 다윗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다.

나는 그래도 이 나라를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에서 구했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전부 도와달라고 매달린다. 도와줬더니 죽인다고 따라 오는 상황이다. 도움받을 이가 하나도 없구나!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볼 것 같다.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나? 왜 저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나는 이해 안 되는 일 투성이다. 나한테 막 몰려오는 사람은 많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10년을 그렇게 지나간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으심 - 나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는 거다. 다윗 안에는 어떤 왕이 될 거라는 아주 극적인 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거다.

기름 부으심 - 나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 이 기름 부음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다.

겉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도 죽이고, 사람들에게 칭송 받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때로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기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반대되는 것 같은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확실한 영적 사실 한 가지,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였고,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으며, 그 기름 부으심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 - 그리스도”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이 뭘까?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라고 불려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신다. 그게 뭐냐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체결하시는 거다.

내가 지금 너를 이 땅에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진짜 이 땅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이다.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지금 너는 보이는 왕으로 설 거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가 진짜 왕. 그는 왕관 하나 쓰지 않을 것이고 왕궁에 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참된 왕으로서 모든 인류를 흑암에서 건지실 그리스도. 그 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딱 체결하시는 거다.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오늘 지금 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이 기름 부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거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으신 거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다.

‘목사님, 저는 왕은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벧전2:9)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누구지라고 했을 때 주신 언약이다. 이거 잡고 가는 거다.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다윗과 같은 응답들을 확인할 거다.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2주째 계속 말씀 주신다. 이드로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오늘 구약공과에서도 엘리야,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에게 주셔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실 것이고 그것을 또 전달하실 거다.

다윗은 특별한 비밀을 가졌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가는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은 무엇일까?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했다.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았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요, 다윗이 딱 잡았다.

형들도 있었고, 자기와 똑같이 양을 치고 있는 수많은 목동들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여주셨고, 다윗은 그 언약을 딱 체결하고 갔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지, 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는지 묵상하고 깨닫기 시작한다.

겔28:10-14

10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1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총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서 땅에 떨어진 바 된 존재 사단. 이 사단이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지실 이는 오직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 내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묵상하면 할수록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사단은 공중 권세 잡고 돌아다니고 있다. 온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계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온 지구는 지금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라는 교과서에서의 주된 흐름은 창세기 3장 1-6 절의 ‘뱀’. 옛 뱀,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역사의 흐름이다. 그 점령하고 빼앗아 온 사람들을 보고 위인이라고 하는 거다.

네퍼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버렸다. 이걸 보고 네퍼림. 지금 조용히 음악 틀어 놓고, 네 마음 깊은 곳에 너를 찾아봐. 그렇게 네퍼림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시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던 자가 보았던 거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왕인가? 이 왕만 사라지면 되는 건가?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어려움 이것만 사라지면 되는 걸까?

아니라는 거다. 다윗은 이 비밀(창3:15)을 봤고, 이 상태(겔28:10-14, 네퍼림)를 알기 때문에 그 배후의 흑암을 보았던 것이다. 지금 이 사울 왕을 잡고 있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네퍼림, 흑암을 바르게 본 것이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흑암이, 거짓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다.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본 것이다.

삼상16:23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축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찬양하는 자요, 예배 시간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인데, 영적인 것들을 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악령이 들려서 고통 속에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다윗)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갔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으니까. 다윗은 이미 이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다.

삼상18:10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 없이 떠돌아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런데 여전히 사울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령에 잡힌 채로 고통받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왕이고, 나를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증인을 쓰기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현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난히 심각하다 큰일났다고 느끼는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영적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 지금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삼상16: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악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가는데 그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을 통해 악령 들린 자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까?’, ‘특별히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만나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흑암에, 악령에, 귀신에 눌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사울왕을 만났을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이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네퍼림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청년들인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오늘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그 직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산업을 하게 하시고, 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다.

창3:4-5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심이니라

창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4-5절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속인다.

반대의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각, 기준, 떠오르는 것들... 거의 다 틀렸다고 보면 된다. 반대의 것들을 보아야 한다. 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내뱉는 모든 것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준에서 있어서 정반대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복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 복이 맞아?” 라고 그리고 다 바꾸라고 하신다.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기준과 모든 것들을.

역발상

10가지 비밀의 핵심, ‘역발상’. 반대의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의 것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나를 가르치신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것' 들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고 계신다. 기도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충만!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이 병든 시대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다 살리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그거 붙잡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하시라.

오늘 시편 23편 6절만 읽었다. 다윗이 사실 막 돌아다니면서 굴에서, 들에서 막 잠을 자지 않는가. 그런데 뭐라 고백하느냐,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지금 도망 다녀야 하고, 피할 곳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와 집에 거하는 자야. 내가 왕궁을 멋지게 짓고, 거기 살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와 집에 거하겠다고 고백한다. 그 언약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망이고, 한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능력인 거다. 하나님이 반대의 것을 보도록 말씀하신다.

결론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7여정 속에서, 이 비밀을 찾아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여정, 이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비밀들을 찾아나가는 자에게는 회복되는 것이다.

빛의 경계 회복!

원단 2강 말씀이다. 빛의 경계가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여정, 빛의 여정, 이 300%를 찾으면 빛의 경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다. 진짜인가? 다윗이 그 증인이다.

다윗은 진짜 오직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평생이 어떠했는가?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 인생 자체를 성전 건축에 사용하셨다.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다 헌당했다. 그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다 주실 거다.

우리는 빨리 빛의 경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도 그러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이 비밀(7여정속의 비밀)을 찾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찾아 누리느냐? 기도 속에서, 이 7여정의 기도 속에서 실제로 그 하나하나를 묵상해 가면서. 이번 주에는 시편 23편을 묵상해 가면서, 7여정 기도를 해보자.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누렸던 그 비밀. 나도 그 여정과 그 길을 지금, 오늘도 걸어가고 있구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비밀들을, 그래서 빛의 경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들을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속에서 찾으시고 누리시는 행복한 여정 되시기를 축복한다.

합심 기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밀들을 찾아누리고, 그것이 빛의 경계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시간표에 다윗이 누렸던 그 영적인 비밀들과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평생 마음껏 누리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헌금 기도 및 축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청년들에게 빛의 경계 응답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천만대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위에,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